

해외산업협력 포럼

최근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체인 변화 및 일본기업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

2012. 6. 11

산업연구원(KIET)
국제산업협력센터

차 례

<제1 발표>

일본 서플라이 체인 변화와 한·일 경제 관계

발표자 : 이우광(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전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연구실장

<제2 발표>

일본기업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

발표자 : 이지평(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본 서플라이 체인 변화와 한일 경제 관계

李 佑 光

목 차



I. 약화하는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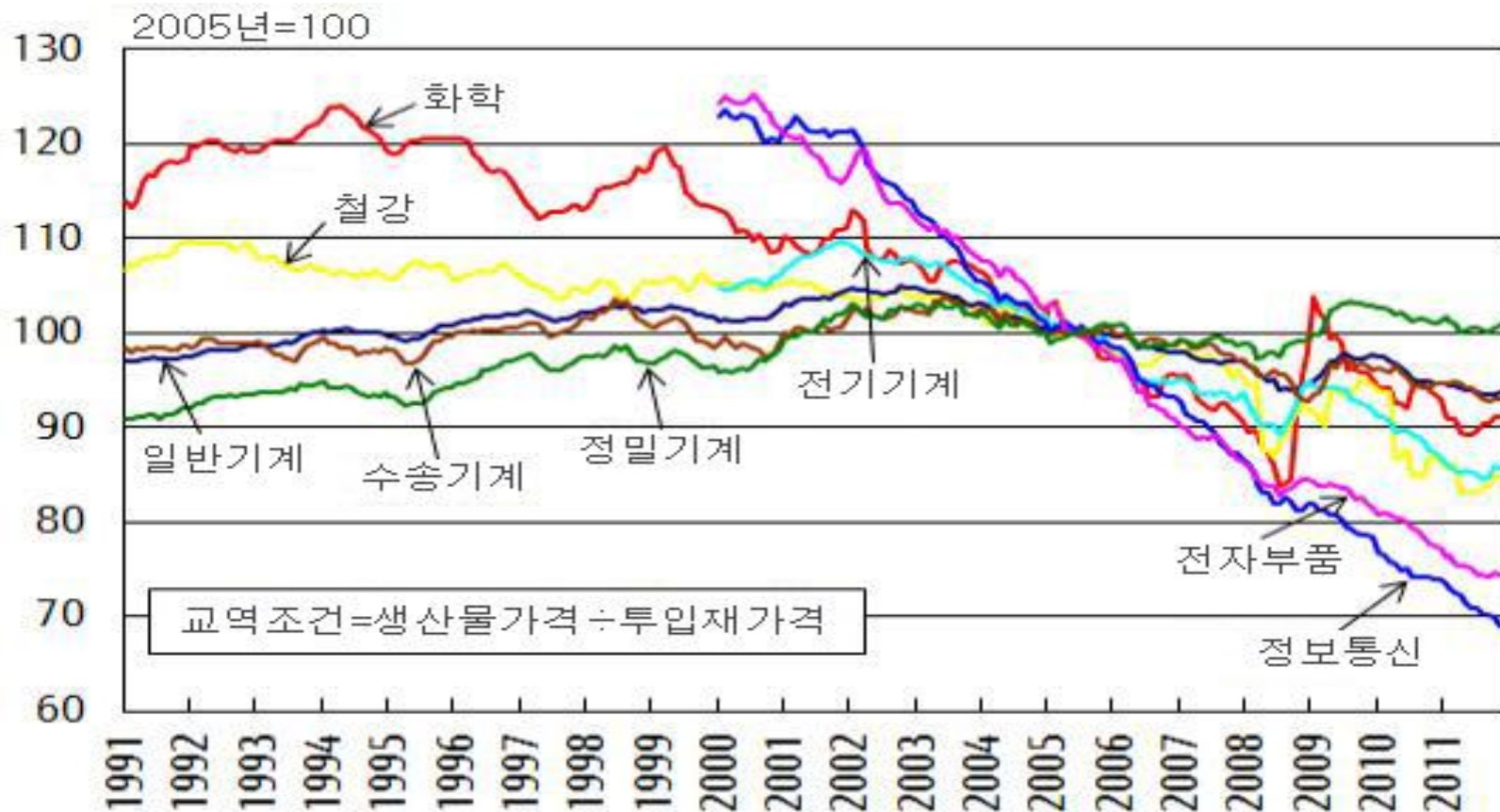
II. 서플라이 체인 변화 현황

III.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IV. 최근 한일 경제관계 변화

1. 리먼 쇼크 이후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저하

- 교역조건으로 본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정밀기계 > 일반기계 > 수송기계 > 화학 > 전기기계 > 철강 > 전자부품 > 정보통신의 順
- 특히 리먼 쇼크 이후 경쟁력 저하가 급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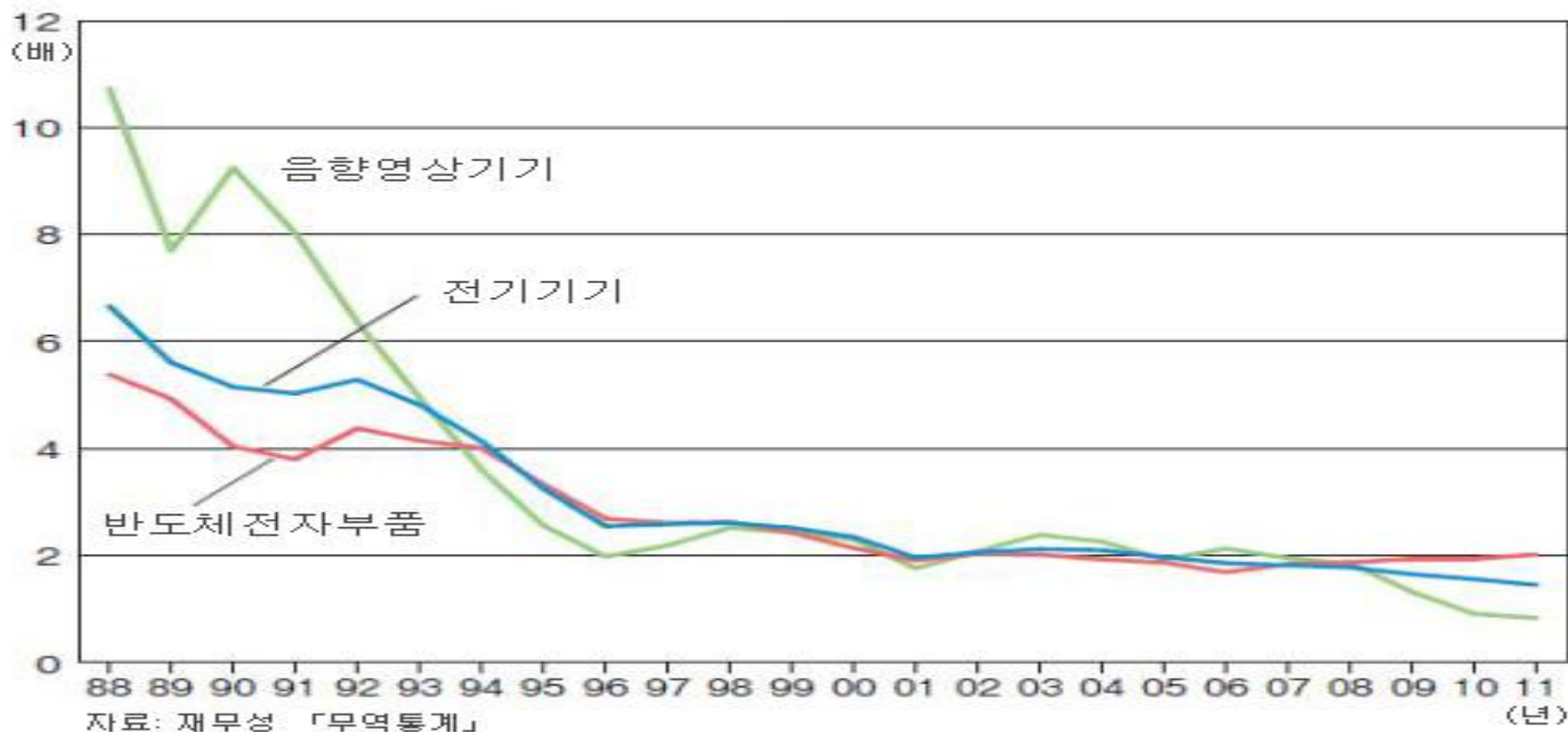


자료: 후지쓰출연, 「교역조건에서 본 일본산업의 미래, 2012.2.10」

2. IT 산업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략

- 1988년 TV를 포함한 음향영상기기 수출은 수입의 10배가 넘었으나, 2010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무역적자 품목으로 전략
- 최근 소니·파나소닉·샤프(가전 3사) 업적악화의 배경

<전자기기, 반도체전자부품, 음향영상기기 수출·수입비율 추이>



3. 마이클 포터의 '5개의 힘' 으로 본 경쟁력 약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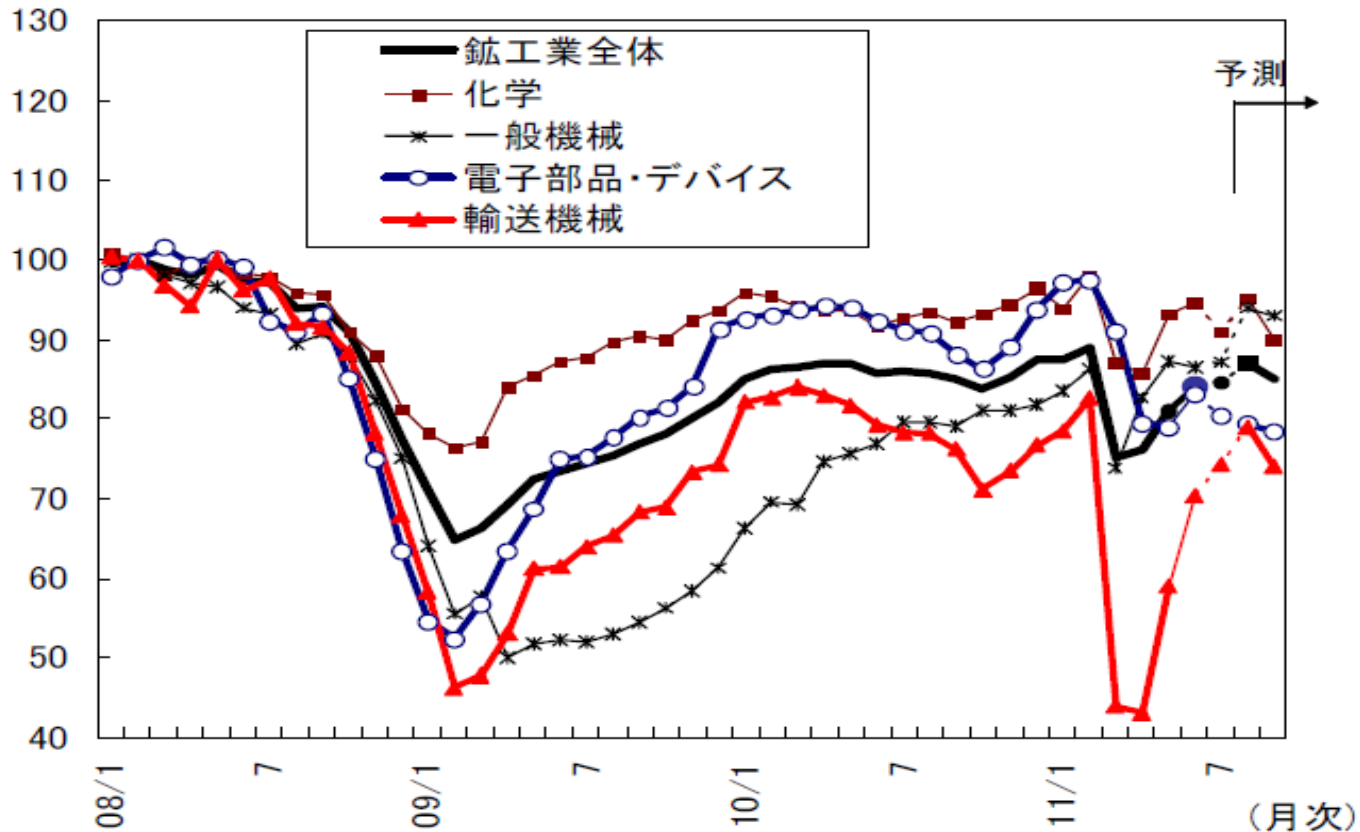
- ▶ 제품 컨버전스가 일어나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데, 한국·중국·대만 등의 신규진입자가 시장 진입하고 있고, 일본국내에서는 다수의 동업타사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양판점 주도의 판매, 제조는 EMS 출현으로 수직계열생산의 코스트 상승



자료 : 三品和廣, 「日本일렉트로 닉스 산업의 總崩壞의 眞因」, DIAMOND online, 2012.2.17에서 정리

4. 일본의 산업경쟁력 저하는 지진영향보다는 수요감소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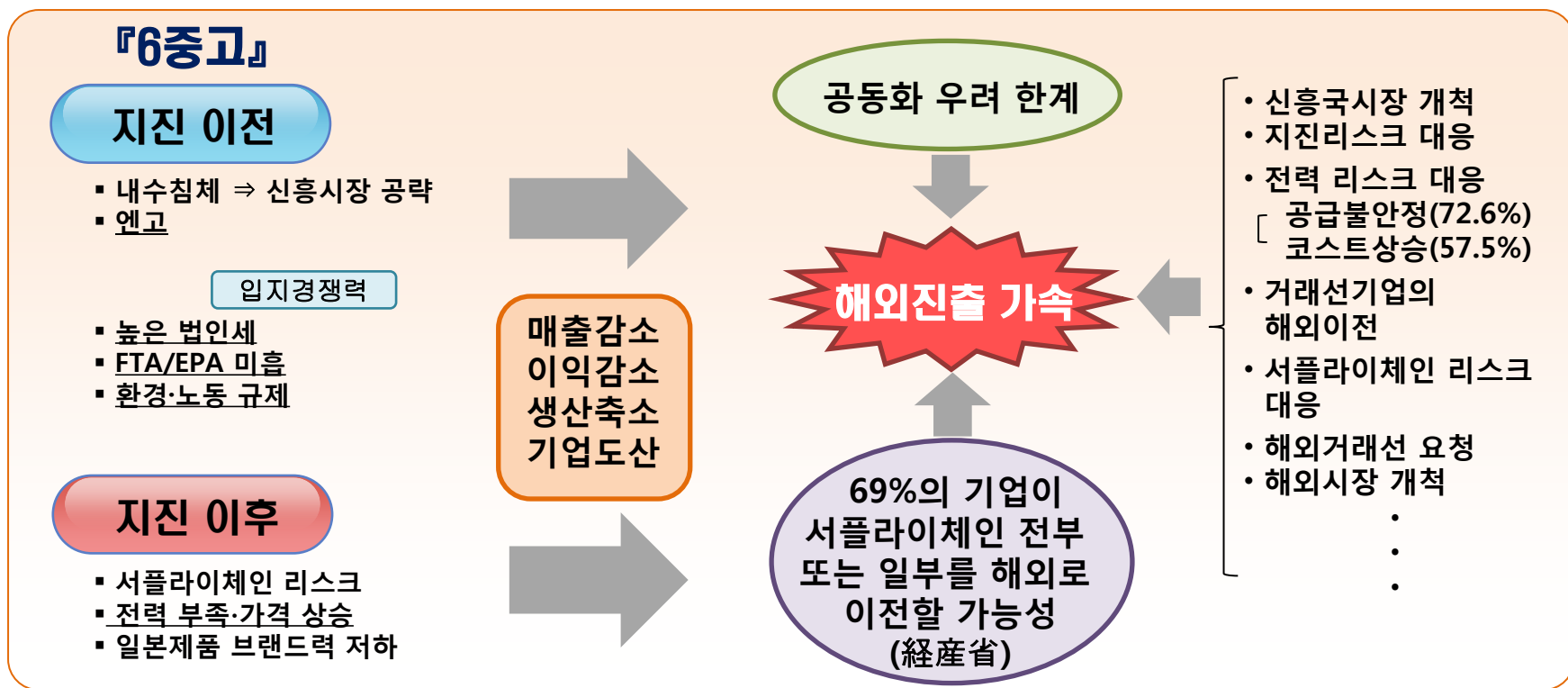
- ▶ 광공업생산 감소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동일본대지진 때보다 리먼 쇼크 이후가 훨씬 심각
- ▶ 일본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본국내수요 감소 + 리먼 쇼크로 인한 선진국 수요 감소 + 신흥국 수요 미개척이 주요 원인



자료 : 경제산업성

5. 『6重苦』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

- ▶ 일본기업들은 리먼 쇼크 이후 내수부진 ⇒ 신흥시장 공략, 엔고, 입지경쟁력 열화로 해외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東일본대지진, 태국홍수 등으로 서플라이 체인 훼손, 전력문제 등이 가세하여 최근 해외진출이 가속
- ▶ 공동화 우려로 해외진출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으나, 일본기업들은 한계에 도달
 - 국내에서 사업 축소하는 것보다, 해외 수익으로 고용확대,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 일본기업의 69%가 서플라이체인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목 차

I. 약화하는 일본제조업의 경쟁력



II. 서플라이 체인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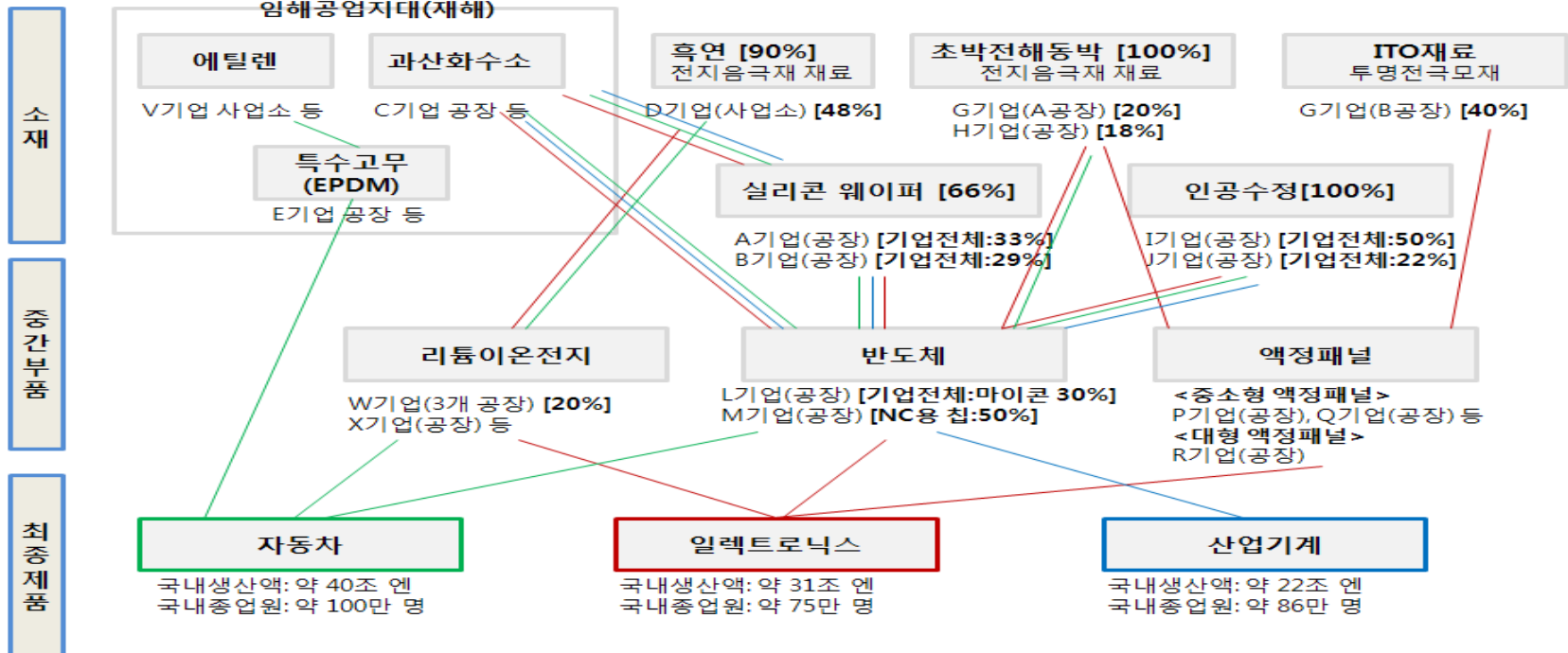
III.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IV. 최근 한일 경제관계 변화

6.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의 계기는 동일본대지진

- ▶ **동일본지역은 자동차 · 전자 · 화학산업의 소재 · 부품 集積地**
 - 동일본지역 기업의 제품 출하액은 7.3%에 불과하였으나 지진피해로 인한 광공업생산은 2011년 3월 15.5% 감소
 - 이중 자동차가 생산감소분이 7.9%p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반기계, 화학, 전기 · 전자 부품 順
- ▶ **일본제조업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드러난 계기**
 - Just in time, 집중조달, 계열구매, Only one 등 일본기업의 강점이 서플라이 체인 훼손의 문제점으로 작용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단절 예시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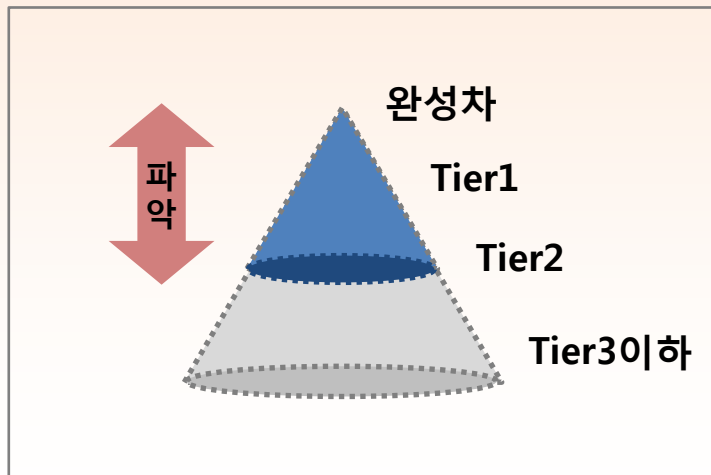
7.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취약성

- 서플라이체인의 구체적 현황 파악 미흡(visibility)
- 일부의 부품·소재 공급업자에 대한 과다 의존 : ‘다이아몬드 구조’ (dependence)
- 설계정보 대체 불가능성(substitutability)
- 설계정보 이동 불가능성 (portability)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체인 취약성』

상정하고 있었던 서플라이 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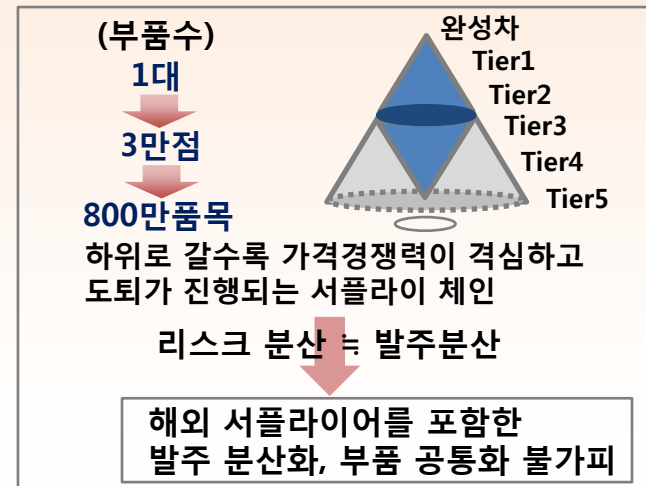
(피라미드 형)



자료 : Mizuho Industry Focus Vol 100에서 인용

실제의 서플라이체인

(다이아몬드 형)



8. 일본기업이 고민하는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 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일본기업의 강점을 보존시키면서 강건(Robustness)한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
- Risk 분산과 Cost/경쟁력의 균형의 문제
 - 태국 홍수 사태의 대응도 본질적으로는 집중 리스크 분산의 문제(자동차, 하드디스크 등)
- 서플라인 재구축을 일본국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지진 재발생 우려)
- 단기적 대응은 일본 국내에서 해결 가능하나, 장기적 문제인 분산화, 공동화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또는 해외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방향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과제	주요 내용	코스트/경쟁력
단기	1. 적정재고 확보 2. 대체 공급선 확보 3. BCP(사업계속계획) 수립	· Just in time을 어느정도 희생 · 재해시 동업사업자간 대체공급 확인 · 복구기간 단축	· 효율성 저하 · 영업비밀 유출 · 코스트 증대
중장기	4. 산업 재편·사업통합 5. 생산거점 분산화·복선화 6. 부품·소재 공동화·표준화	· 사업제휴 등으로 생산거점을 전국 분산 · 핵심 소재·부품 생산거점을 타지역·해외로 이전 · 부품, 소재의 정리 및 사양의 표준화	· 실현, 효과 의문 · 공동화 우려 · 경쟁력저하 우려

9. 지진1년,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모습 ①

① ‘서플라이 체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서플라이 체인 ‘가시화’ 를 철저하게 추진 : 1차 공급업자에게 서플라이 체인 公示를 요청하여 仕入先을 리스트 업 ⇒ 재해 시에 어느 공장, 어느 제품에 차질이 있을지를 역산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 생산거점 분산, 재고 확보 등을 요청
-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공시를 꺼리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2주 이상 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약 체결(공급 의무)
- 1차 공급업자가 → 2차, 2차가 → 3차 의 BCP 계획을 수립
⇒ 대지진 발생시에도 2주 정도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요타자동차)

② ‘예비 서플라이 체인’ 마련 : 재고 확보와 조달선 분산

- 부피가 적은 전자부품 등은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하고, 보존이 어려운 화학재료 등은 2곳 이상에 분산 발주
- 재고를 일률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부품에 대해 한정하여 數日分을 확보

③ 일본내 부품업계의 ‘선택과 집중’ 을 추진

- 지금까지 일본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주였으나, 수요감소, 엔고, 지진 등을 배경으로 ‘무엇을 일본에 남기고, 무엇을 해외로 가져갈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추진(닛산자동차)

10. 지진1년,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모습 ②

- ④ **공통화, 공용화, 표준화 :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코스트도 절감시키는 방안 모색**
 - 여러 제품에 대해 소재나 부품을 공통으로 사용하면 개발비, 고정비가 절약되고 공급선 분산도 가능
 - 초기 개발에는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고, 재해 시에도 부품 조달이 용이
 - 부품업체의 경우도 조립메이커의 공장이 폐쇄 되어도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용이

- ⑤ **리스크 관리와 코스트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기존제도 개혁**
 - 서플라이 체인 복구과정에서 리스크 회피 방안이 코스트 절감으로 연계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
 - 대체부품의 정의 변경 : 설계나 생산라인 변경이 필요 없는 ‘100%호환’ 에서 ‘±10%’ 도 채용
 - ⇒ 제도 완화로 코스트 삭감
 - 품질기준 완화 : 일본 품질기준에서 해외 품질기준으로 이행 하여 표준품 채용을 가속
 - 신뢰성 평가기준 완화
 -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명확화
 - ⇒ 결국 리스크 관리가 코스트 절감, 개발스피드 향상으로 연결

- ⑥ **해외 一極 집중도 분산**
 - 태국 홍수, 중국의 노사분규를 계기로 해외에서의 一極생산 리스크도 분산 움직임
 - 여타 신흥국에 동일한 생산라인 구축
 - 분산으로 인한 코스트 상승을 감수하면서 지역 리스크(재해, 임금상승, 노사분규)를 회피

목 차

I. 약화하는 일본제조업의 경쟁력

II. 서플라이 체인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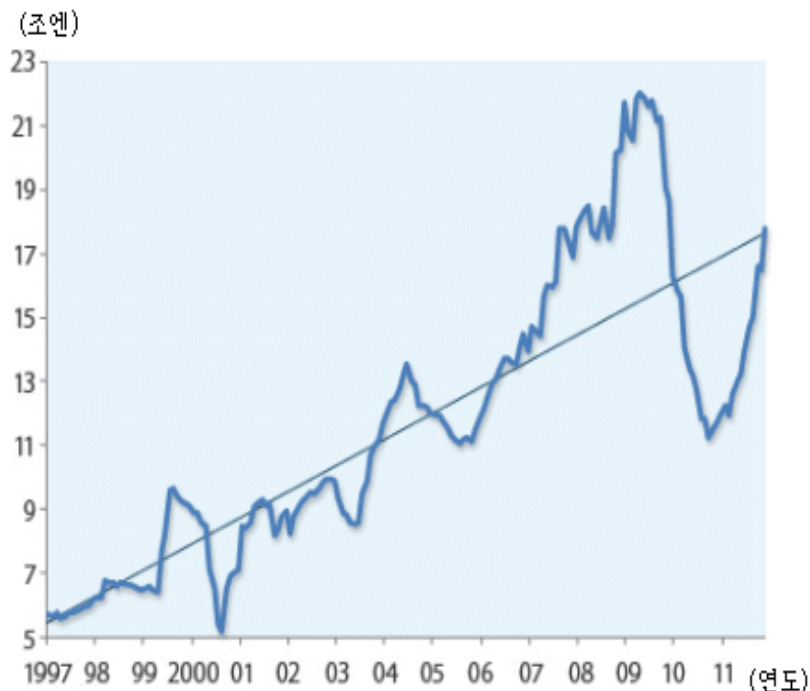
→ **III.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IV. 최근 한일 경제관계 변화

11. 해외직접투자, 해외생산비율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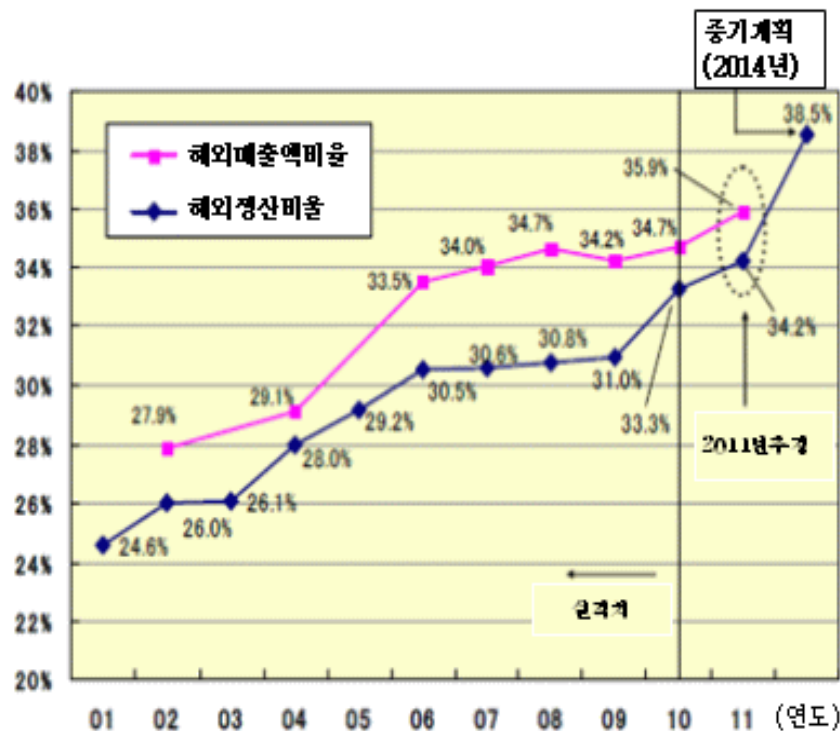
- 리먼 쇼크 이후 주춤했던 일본기업 해외진출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
 - 2008년 과거최고치인 1,308억 달러, 2010년 572억 달러, 2011년 1,156억 달러로 85%나 증가
- 일본제조기업들은 해외생산비율을 향후에도 증가시킬 전망
 - 해외생산비율은 2011년 34.2%에서 2014년에는 38.5%로 증가시킬 전망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액 추이



자료 : 재무성, 일본은행

일본제조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와 계획



자료 : 국제협력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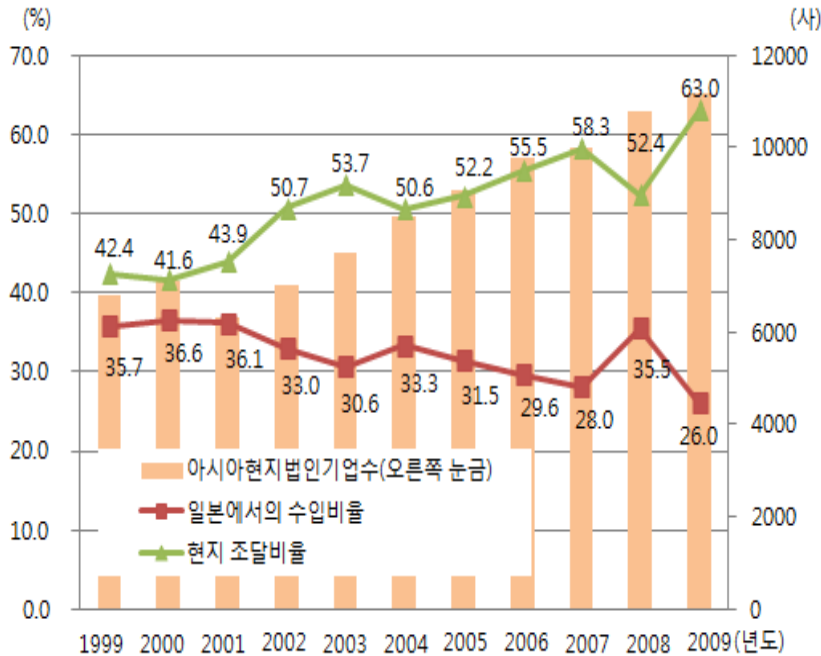
12. 아시아 진출, 현지조달 증가 ⇒ 소재·부품 수출 감소

➤ 아시아 진출 증가, 현지조달 증가, (일본으로부터) 수입 감소

- 10여년간(1999 → 2009) 현지조달비율 이 42.4% → 63.0%로 증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 35.7% → 26.0%로 감소
- 현지조달은 진출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현지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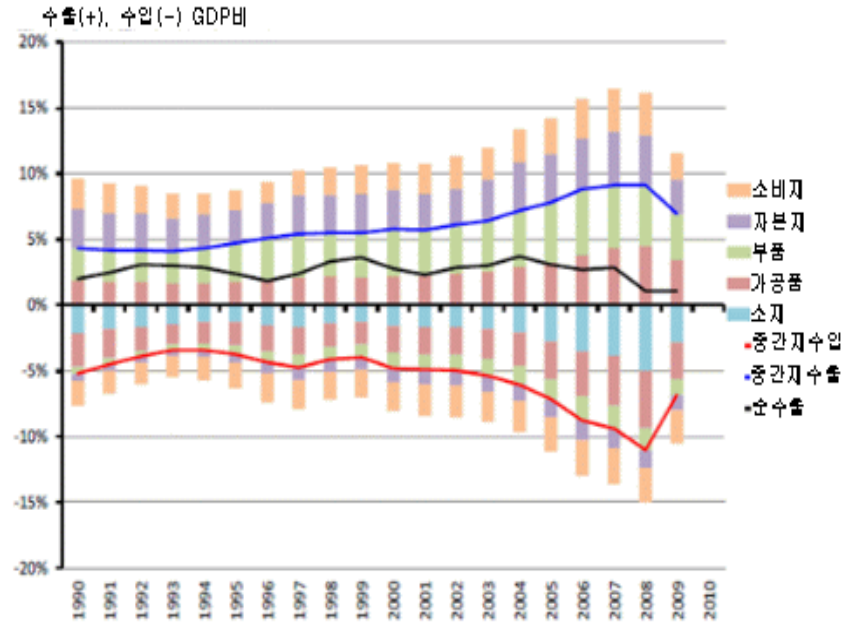
➤ 일본의 강점분야인 가공품(소재)·부품·자본재(장치) 수출이 감소

아시아진출 일본기업의 조달선 변화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일본의 제품별 수출입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13.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1)

①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M&A 증가

- 2011년도 상반기(4-9월) M&A 건수는 241건으로 반기 베이스로는 과거 최대
- 내수산업도 본격진출, 중국을 생산거점에서 판매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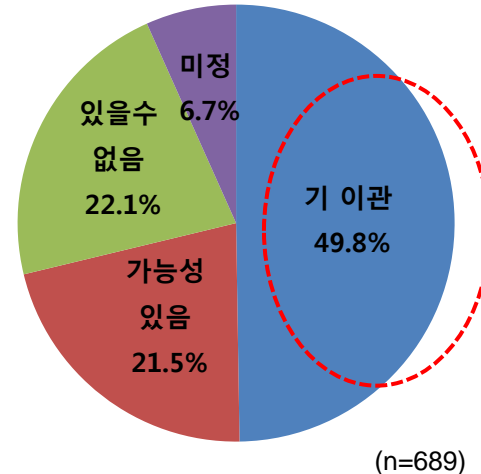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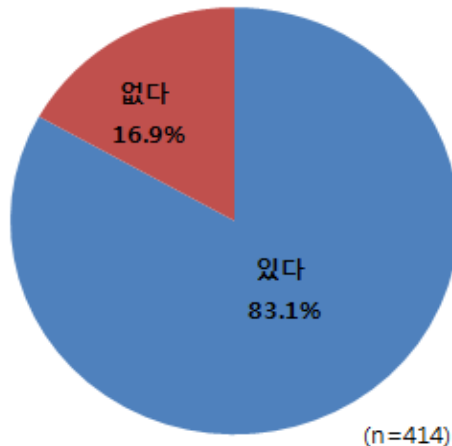
② 소재 · 부품 등 주력제품의 해외진출도 활발

- 신흥국 수요확대, 엔고 대책,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분산, 전력부족 장기화 등이 배경
-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클러스터를 생산 · 수출 거점으로 활용

③ R&D 거점의 아시아 진출 증가

- 高코스트 다운그레이드 → 低코스트 업그레이드, 우수인재 확보 등

일본기업의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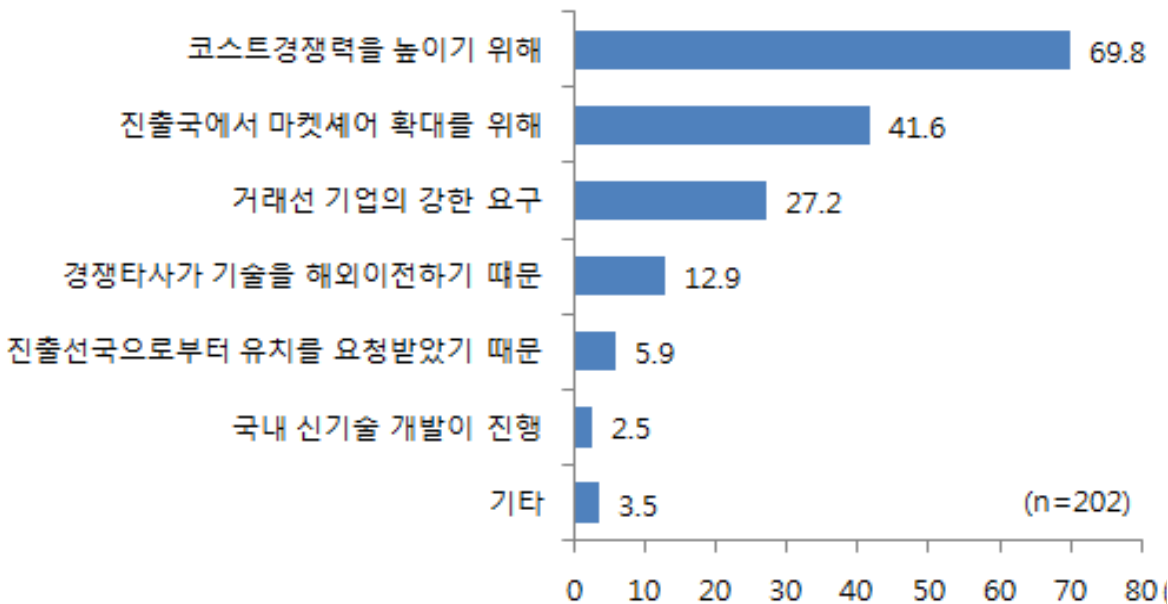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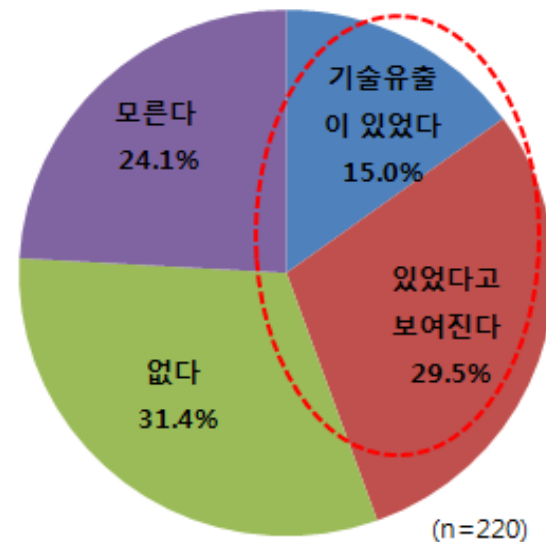
14. 핵심 기능도 이전하는 배경

- 코스트 경쟁력 강화(69.8%), 시장점유율 확대(41.6%), 거래선 요구(27.2%) 등
-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을 우려
 - 이미 기술유출이 있었다가 15.0%, 있다고 보여진다가 29.5%

일본기업이 핵심기능을 이전하는 이유



해외진출시 기술유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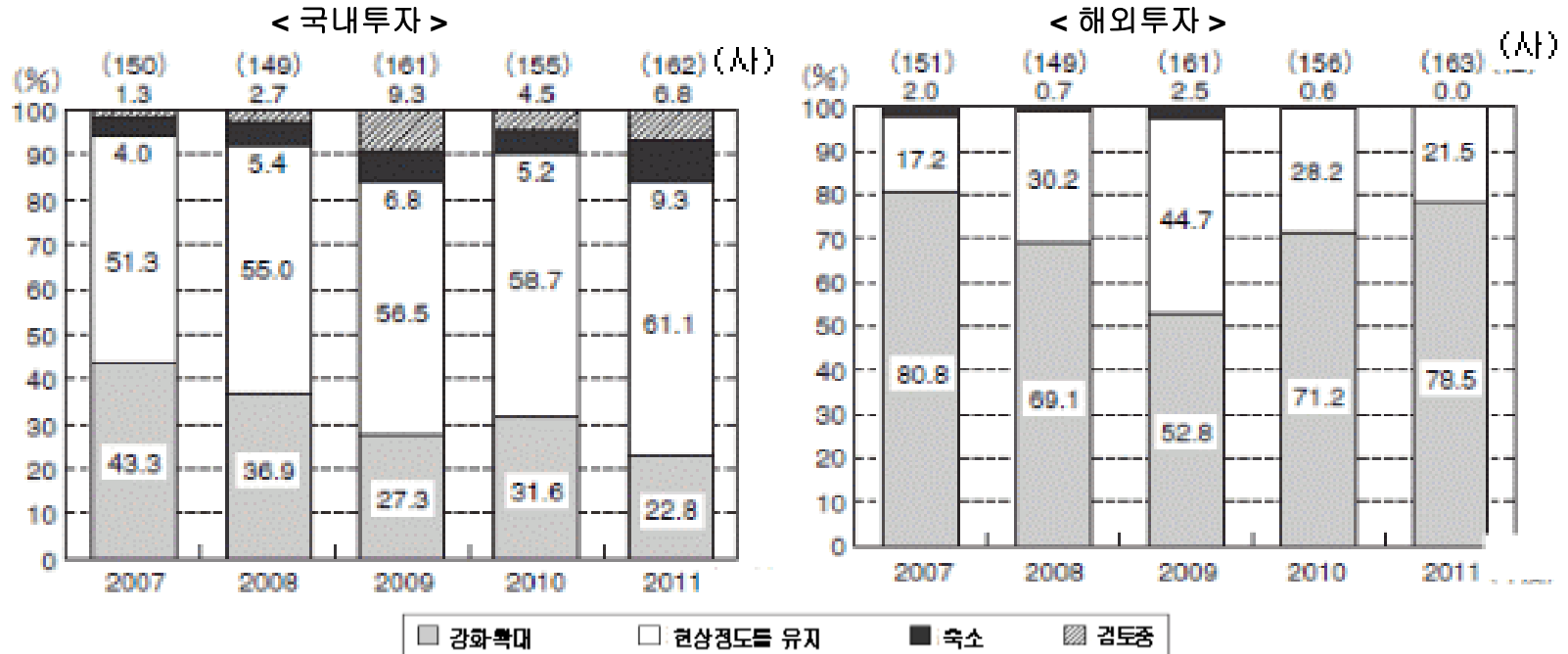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15.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

④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적극적 :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 일본내 소기업 집적지가 공동으로 해외진출(일본 지자체, 정부도 지원)
- 교토시, 군마현, 하마마쓰시, 도쿄 오타구, 가쓰시카구 등(일본경제신문 10.31字)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자금, 노하우, 서비스 등에 한계
- 일본 종합상사, 해외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공단조성, 서비스 등을 지원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향후 해외/국내 사업 전망



자료 : 國際協力銀行, 2011

16.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요약

▶ 地産地消, 지식·기술산업 이전, 중국 리스크 확대 등이 주요 배경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변화의 배경

	리먼 쇼크 이전	리먼 쇼크,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시장 공략, 수출 가공거점 마련을 위해 진출 · 핵심 부품·소재는 주로 수출 · 조립 공정은 현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룸 존’ 전략에서 ‘地産地消’ 전략(현지생산, 현지판매)으로 진화 · 생산기지도 이전(입지여건 악화) · 내수용 산업도 적극 진출(내수부진)
진출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전기·전자 및 관련 중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진출업종에 소재산업인 화학, 내수산업도 진출하기 시작
진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중국, 인도 ·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성장성을 중시하는 진출 · 중국, 태국 중심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 · 소득상승,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 확대 · 입지여건이 양호한 한국, 대만 진출도 가시화
진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단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합작, 단독 등 다양한 투자 형태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생산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등 핵심분야도 일부 이전 · 현지제품 개발을 위한 R&D 기능도 이전 · 최신제품도 현지에서 생산 · 마케팅 기능 강화 및 본사도 이전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조립의 대기업 · 동반 중견·중소 기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중소기업 진출이 적극적

자료 : 저자 작성

17. 일본은 경상적자 국 전략조차도 우려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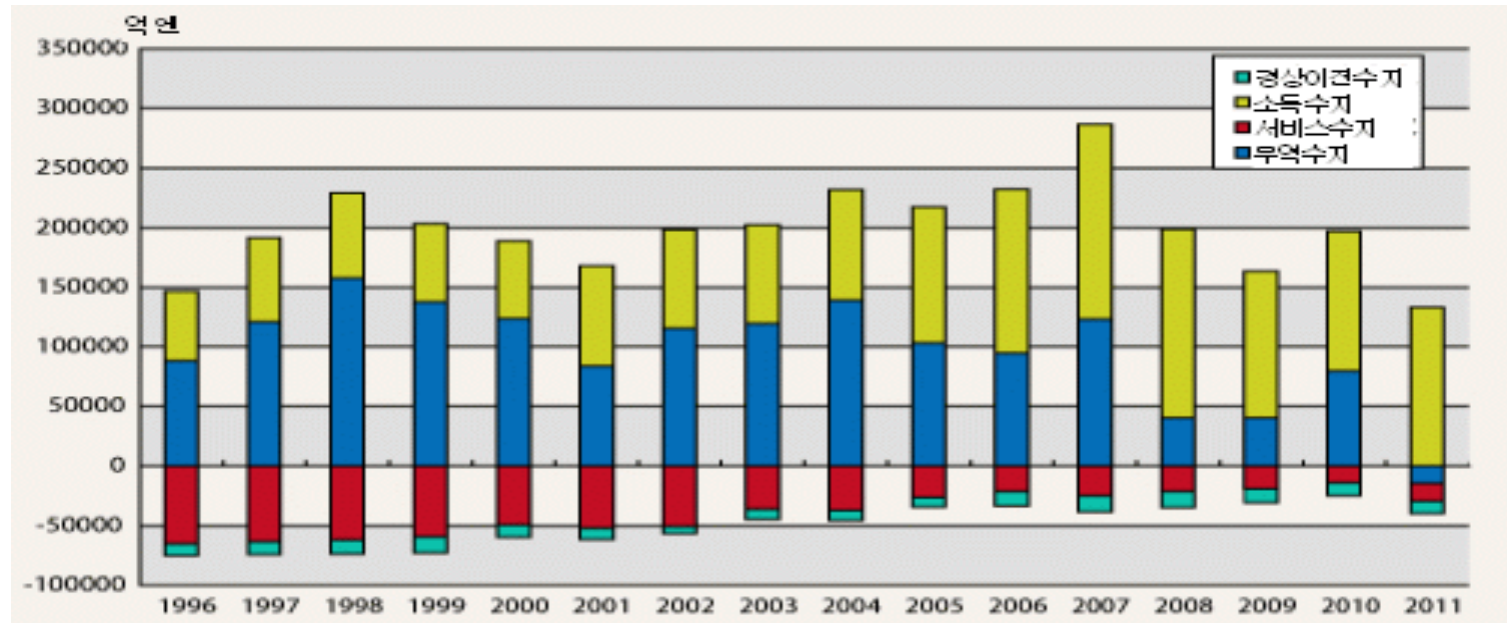
➤ 2007년경부터 경상흑자가 감소하는 추세

- 2005년부터 소득흑자가 무역흑자를 초과하기 시작하고 이후 무역흑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31년만의 무역적자, 경상흑자도 2011년 전년대비 43.9% 감소
- 수출감소, 연료수입 증가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향후에도 무역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향후에는 무역적자를 소득흑자로 메꾸어 경상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의 전환
- 재정적자확대 → 국채발행확대 → 신용하락 → 국채 해외소화 불가피 → 금리상승 → 엔저 전환을 우려

일본의 무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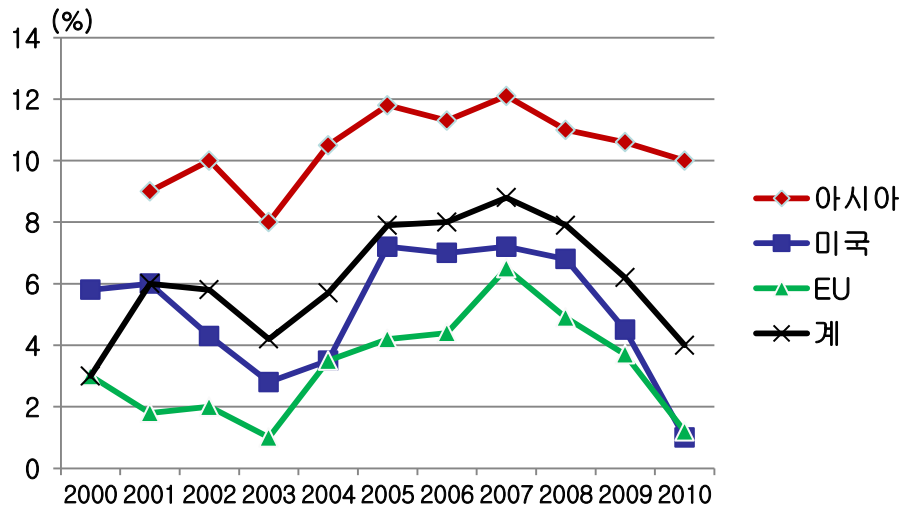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18.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필요한 이유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비중은 미국, EU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
 - 2008년말 대외직접투자잔고/GDP는 미국 25.6%, 독일 36.0%임에 비해 일본은 12.3%에 불과(한국은 27.1%)
 - 일본의 직접투자수익률은 6% 정도로 미국 8.9%, 영국 7.5%에 비해 낮은 수준
- 아시아지역 직접투자수익률이 미국, 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를 상회
- 2011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수익이 3조 8천억엔(34% 증가)으로 과거 최고
 -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이익(배당금, 사내유보)을 국내로 還流하는 『투자입국』으로 전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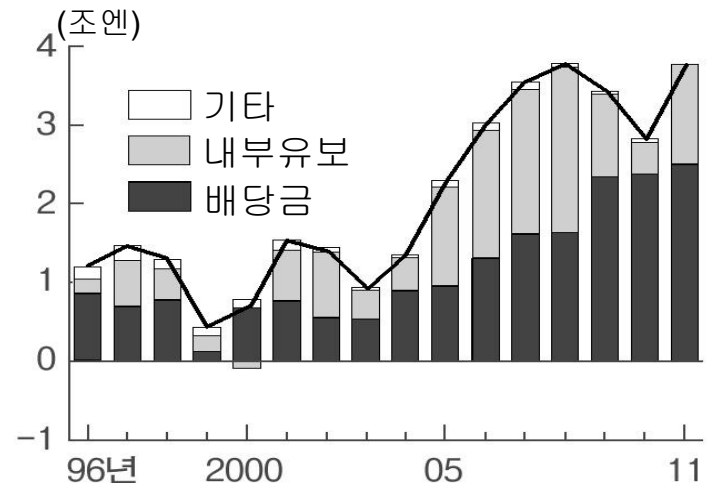
일본 직접투자수익률의 지역별 추이



자료: 일본은행

주: 투자수익률은 투자수입금/((전년말잔고+당해연도말 잔고)/2)로 산출
2000년의 아시아는 마이너스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수익 추이



자료: 재무성

목 차

I. 약화하는 일본제조업의 경쟁력

II. 서플라이 체인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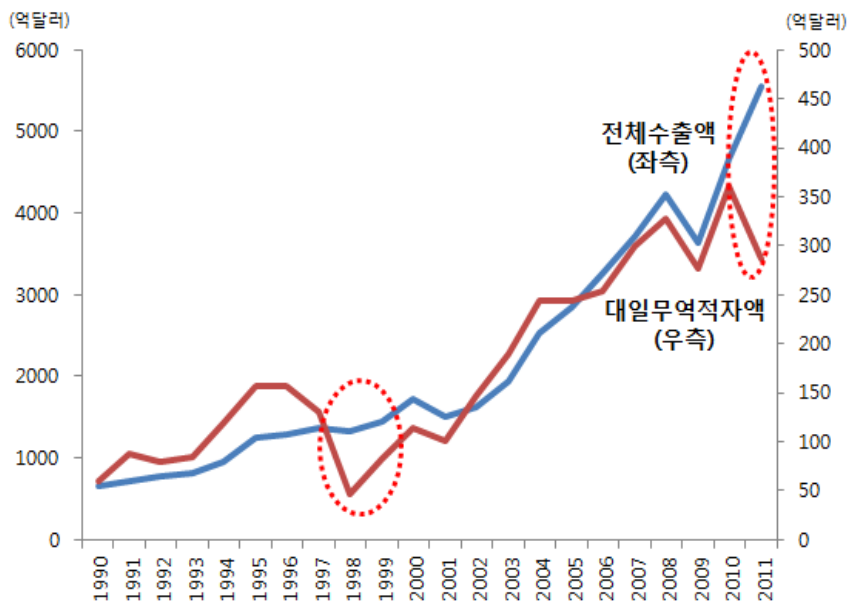
III.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IV. 최근 한일 경제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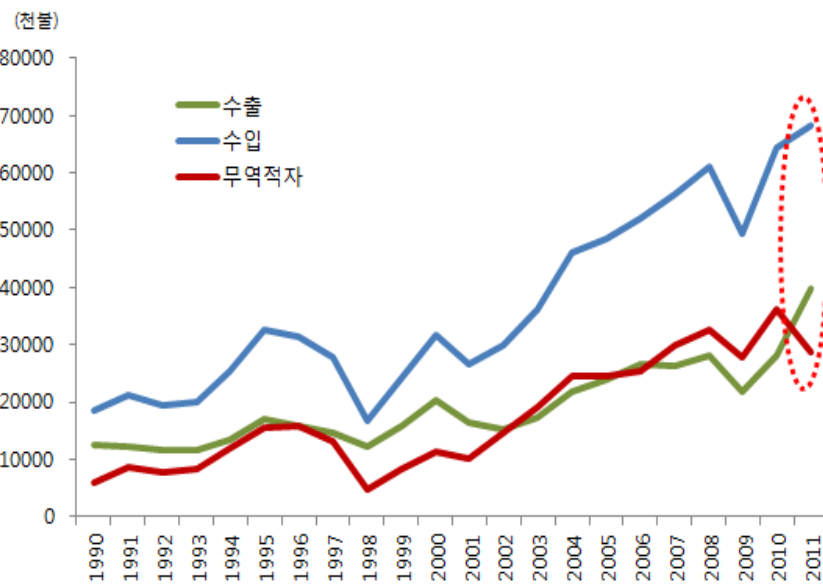
19. 최근 『확대균형』 조짐을 보이는 한·일 경제 관계

- 2011년, 한국의 총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현상 발생
 - 2011년 대일수출은 397억 달러로 전년대비 40.9% 증가하였으나, 대일수입은 683억 달러로 6.2% 증가에 그침
 - 대일무역적자가 2010년 361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286억 달러로 75억달러, 20.7% 감소
-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리먼 쇼크 이후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가 한일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한국의 총수출과 대일무역적자의 추이



한국의 대일 수출/수입 추이



자료 : KOTRA

20.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도 적극적

➤ 2011년, 일본기업의 對한국 직접투자도 124.8%나 증가

-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매력적인 투자先이 아니었으나, 2011년 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다음으로 직접투자 증가율이 높음 ※ 태국은 2011년 말, 복구투자가 급증했을 가능성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 직접투자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억불)	증가율(%)
중국	65.8	61.7	62.2	65.0	69.0	72.5	127.8	76.3
홍콩	17.8	15.1	11.3	13.0	16.1	20.9	13.6	△34.6
대만	8.3	4.9	13.7	10.8	3.4	-1.1	8.6	n.A
한국	17.4	15.2	13.0	23.7	10.8	10.9	24.4	124.8
싱가포르	5.6	3.8	22.3	10.9	28.8	38.5	44.9	16.8
태국	21.3	19.8	26.1	20.2	16.3	22.5	71.3	217.4
인도네시아	11.9	7.4	10.3	7.3	4.8	4.9	36.1	636.1
말레이시아	5.2	29.4	3.3	5.9	6.2	10.6	14.3	35.9
필리핀	4.4	3.7	10.5	7.1	8.1	5.1	10.2	98.5
베트남	1.5	4.7	4.8	11.0	5.6	7.5	18.6	148.4
인도	2.7	5.1	15.1	55.5	36.6	28.6	21.1	△26.2
합계	161.9	171.7	193.9	233.5	206.4	221.3	392.6	77.4

자료 : JETRO

21. 한·일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 최근 일본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에 첨단제품의 생산기지, 대기업과의 협력, 한국수요를 겨냥한 진출,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연구개발 거점, 기업간 제휴, 전력불안 해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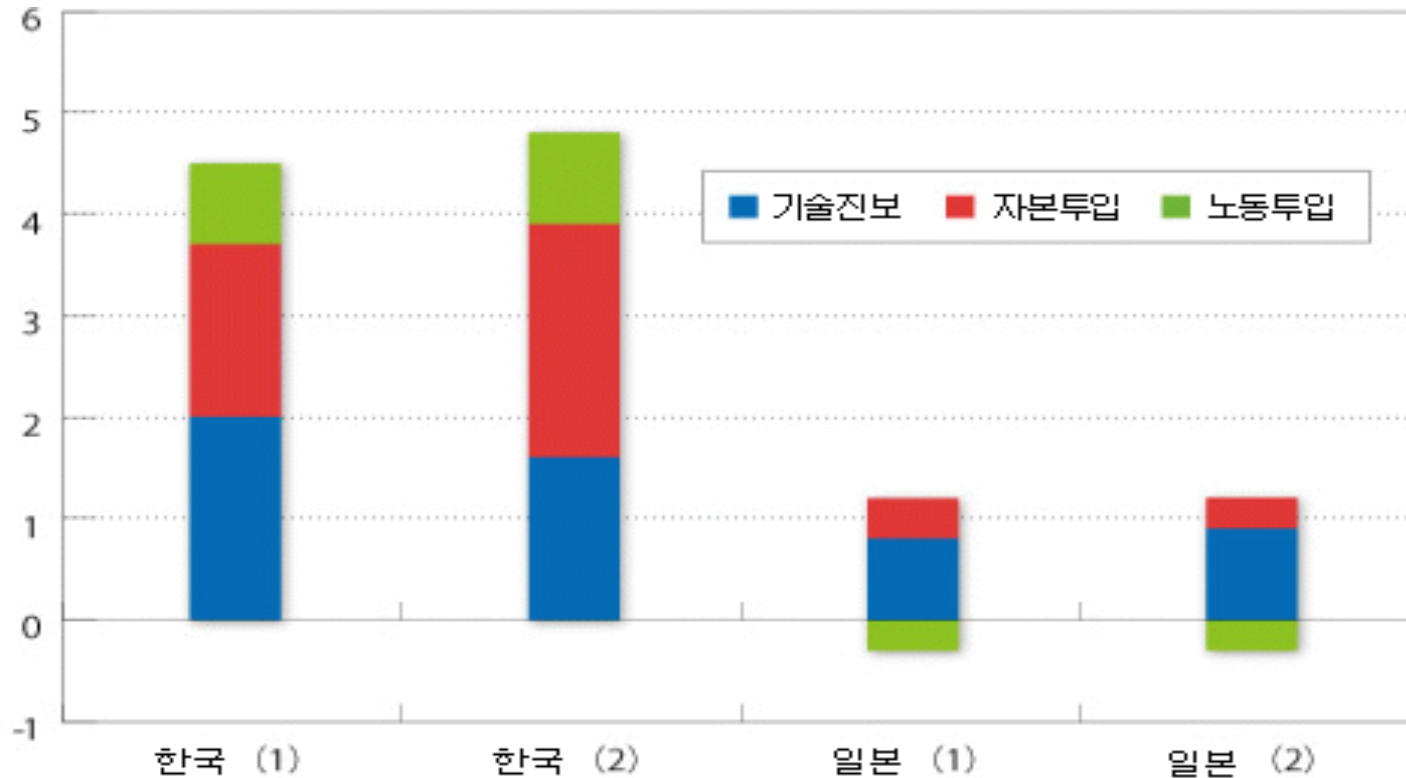
분류	기업명	내용	배경
첨단제품 생산기지	도레이	탄소섬유(양산제품)공장 신설	· 전력요금, FTA 등
	旭化成	ABS 수지용 아크릴 증산	· 세계최대 생산거점으로 활용
첨단소재 생산 (한국 대기업과 협력)	宇部興産	삼성과 수지재료 생산	· 굴절가능 패널의 한국수요 예상
	住友化學	삼성과 터치패널 공장 건설	· 한국 수요 대응
집중 리스크 대응	日立金屬	마오카(도치기)공장의 자동차 부품 생산 일부를 한국·미국에 이전	· 전력 제한 등에 대응
	일본 바르카공업	반도체제조장치의 고기능부재 생산	· 거래선 한국기업의 진출 요청 · 일본내 집중리스크 분산
연구개발 거점	알박	액정패널 제조 분야	· 해외 첫 연구개발 거점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제조 장치	· 기술자의 30-40% 상주
기업간 제휴	JX닛코닛세키	SK이노베이션과 석유화학제품, 윤활유 합병공장 건설	· 전략적 제휴
전력불안 해소	소프트뱅크	데이터 센터의 한국 이전	· 전력문제 등에 대한 리스크 분산

22.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1) 시장 성장성

➤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1% 수준인데 한국은 4% 정도

- 일본은 노동투입 감소, 가계 저축을 감소로 인한 자본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력 저하의 원인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과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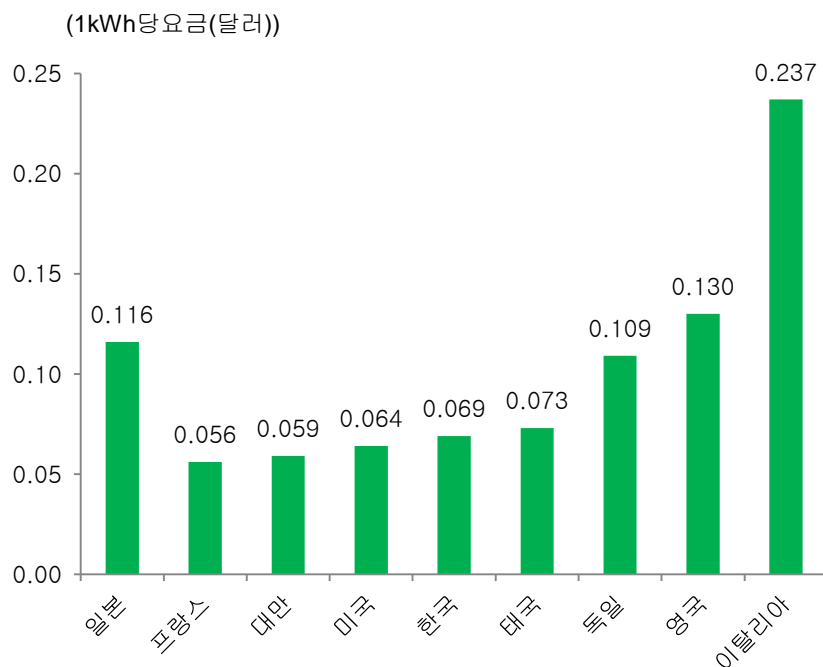


자료 : KDI, 한국은행, 내각부

23.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2) 전기요금, 법인세

- 일본의 전기요금(산업용)은 한국의 2배 정도
 - 향후에도 원발 문제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
- 법인실효세율은 한국이 24.2%, 일본은 40.69%
 - 일본은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산업용, 2007년)



자료 : 미국에너지청정보국

법인실효세율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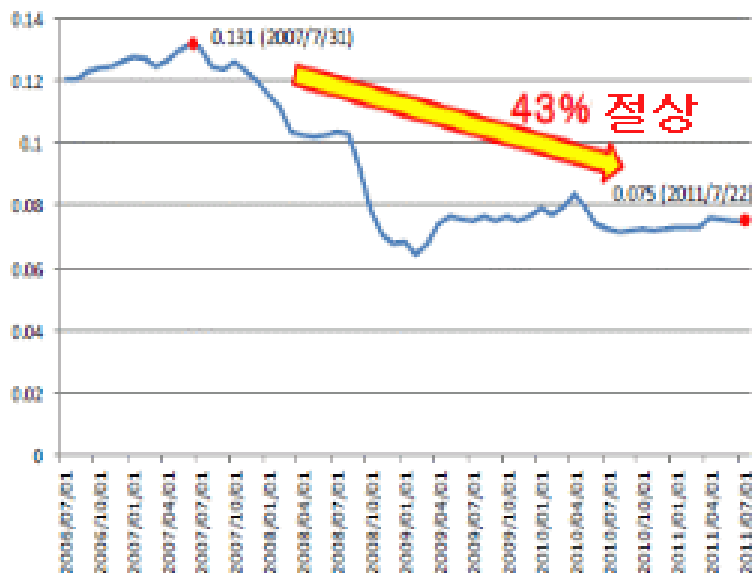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주: 한국은 서울 기준

24.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3) 환율,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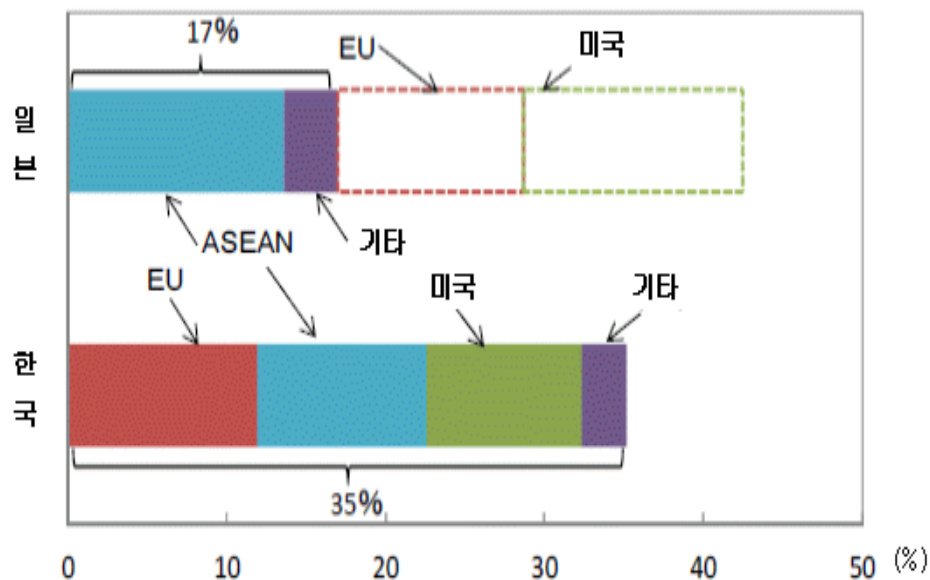
- ▶ 한국이 의도적으로 원저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엔고시 적극 개입 주장
 - 원저는 국제금융불안, IMF 경제위기시의 한국의 금융제도 때문이라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
- ▶ 한국보다 미흡한 FTA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TPP, 일EU FAT,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
 - FTA/EPA 체결 · 서명국이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35%, 일본은 17% 로 절반 정도
 - 일본은 2020년까지 FTAAP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

최근 엔/원 환율 변화 추이



자료 : 재무성

일경평균주가와 원/엔 추이



자료 : 내각부

25.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4) 물류

- 한국의 물류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 : 동해안지역 일본기업이 부산을 선호
 - 특히 동해 지역 입지 기업에게 상당히 유리

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량 변화(1980 ⇒ 2010년)

순위	항만명	취급량 (만TEU)	순위	항만명	취급량 (만TEU)
1	뉴욕/뉴저지	195	1	상해	2,907
2	노텔담	190	2	싱가포르	2,843
3	홍콩	146	3	홍콩	2,353
4	고베	146	4	심천	2,251
5	高雄	98	5	부산	1,416
6	싱가포르	92	6	영파	1,314
7	산황	85	7	광주	1,255
8	롱비치	82	8	청도	1,201
9	함부르크	78	9	두바이	1,160
10	오클랜드	78	10	노델담	1,115
.					
13	요코하마	72	27	도쿄	420
16	부산	63	36	요코하마	328
18	도쿄	63	46	고베	225
39	오사카	25	51	나고야	211
46	나고야	21	56	오사카	184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26. 일본기업이 한국을 진출선으로 주목하는 배경

- 한국진출은 서플라인체인 재구축의 관건인 리스크와 코스트의 밸런스 유지 가능
-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기술집약형 산업이 진출하기 좋은 여건
- 한국 글로벌 대기업을 약진, 한국기업의 제조능력을 활용 가능

1) 가까운 거리 : Just in time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

2) 물류거점의 발달 : 부산 , 서해안 등

3) 산업집적, 기술집적, 질 높은 노동자

- 기술집약형산업의 경우 전체 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4) 생산코스트 절감 : 초기 투자비용 저렴,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 낮은 법인세 등

5) 판로확보 :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 용이(신제품개발, 글로벌시장진출, 생산능력 등)

6) 한국기업의 기술력 : 모노쓰쿠리 기술 활용 가능

- 일본제품 경쟁력의 원천인 特注品 (커스터마이즈 제품) 생산에도 좋은 여건

7) 자연재해 최소 지역 : 지극히 낮은 지진발생, 홍수 확률

- 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의 피해 막대

27.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는 상당히 적은 편

- 한국진출 일본기업은 아시아 타지역 진출보다 경영애로 사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9개국 중 한국은 코스트 삭감의 어려움(3위)을 제외하면 애로사항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편
 - 임금상승, 경쟁대두 등이 주요 애로요인이나 다른 입지경쟁력은 양호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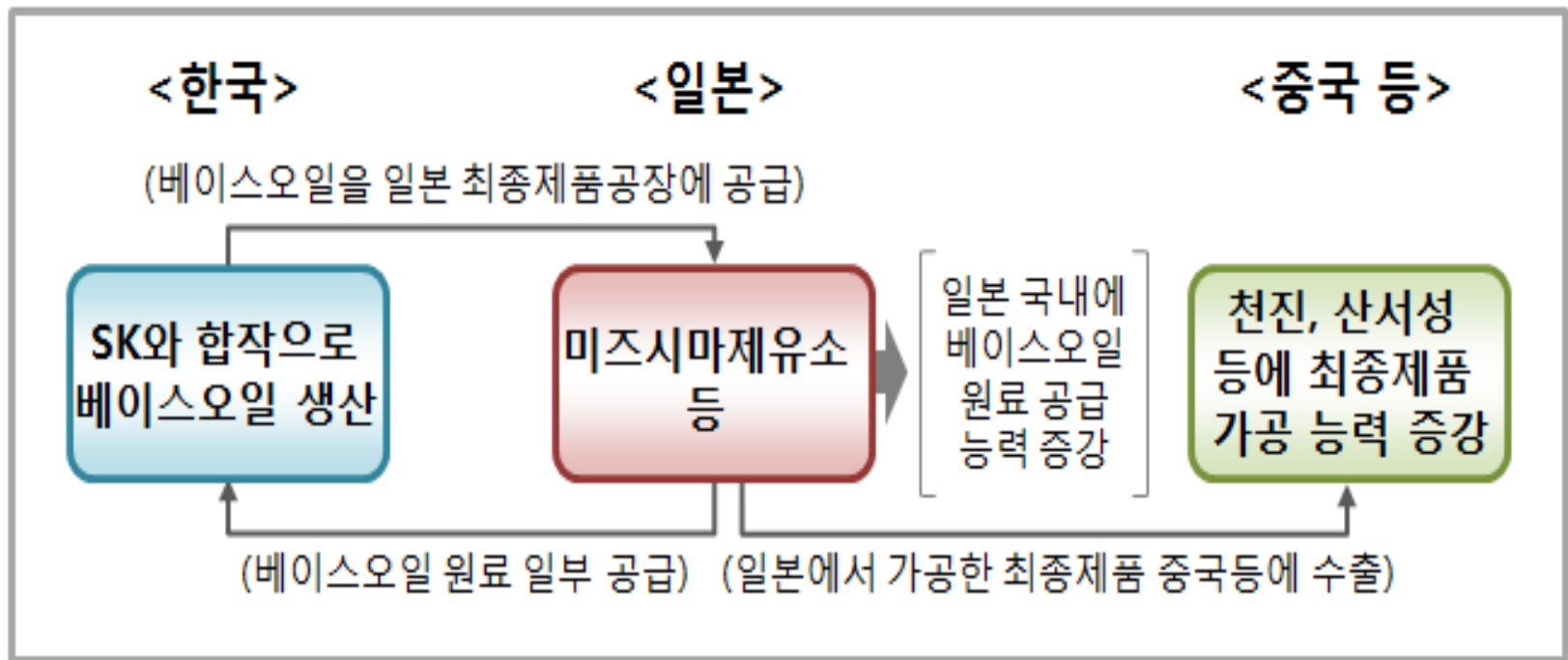
경영애로 항목	한국에서 애로를 느끼는 기업의 비중	조사지역과 비교 순위 (19국가·지역 중)
1. 종업원의 임금상승	60.2%	11위
2. 조달 코스트 상승	50.0%	14위
3. 경쟁상대의 대두	48.9%	10위
4. 현지 인재의 능력·의식	34.9%	14위
5. 종업원의 질	27.3%	17위
6. 한계에 달한 코스트 삭감	55.6%	3위
7. 원재료·부품 현지조달의 어려움	19.4%	17위
8. 간부 후보 인재의 채용난	22.1%	18위
9. 거래선의 가격인하 요청	30.7%	12위
10. 품질관리의 어려움	19.4%	16위

자료 : JETRO, 순위가 19위에 가까울수록 경영애로 사항이 적다는 것을 의미

28. 양국 기업이 Win-Win하는 비즈니스 모델 사례

- JX닛코닛세키는 SK와 협력하여 베이스오일 원료를 SK에 일부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베이스오일로 일본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일본 국내 또는 중국 등지로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한·중·일 기업이 Win-Win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JX닛코닛세키의 한중일 비즈니스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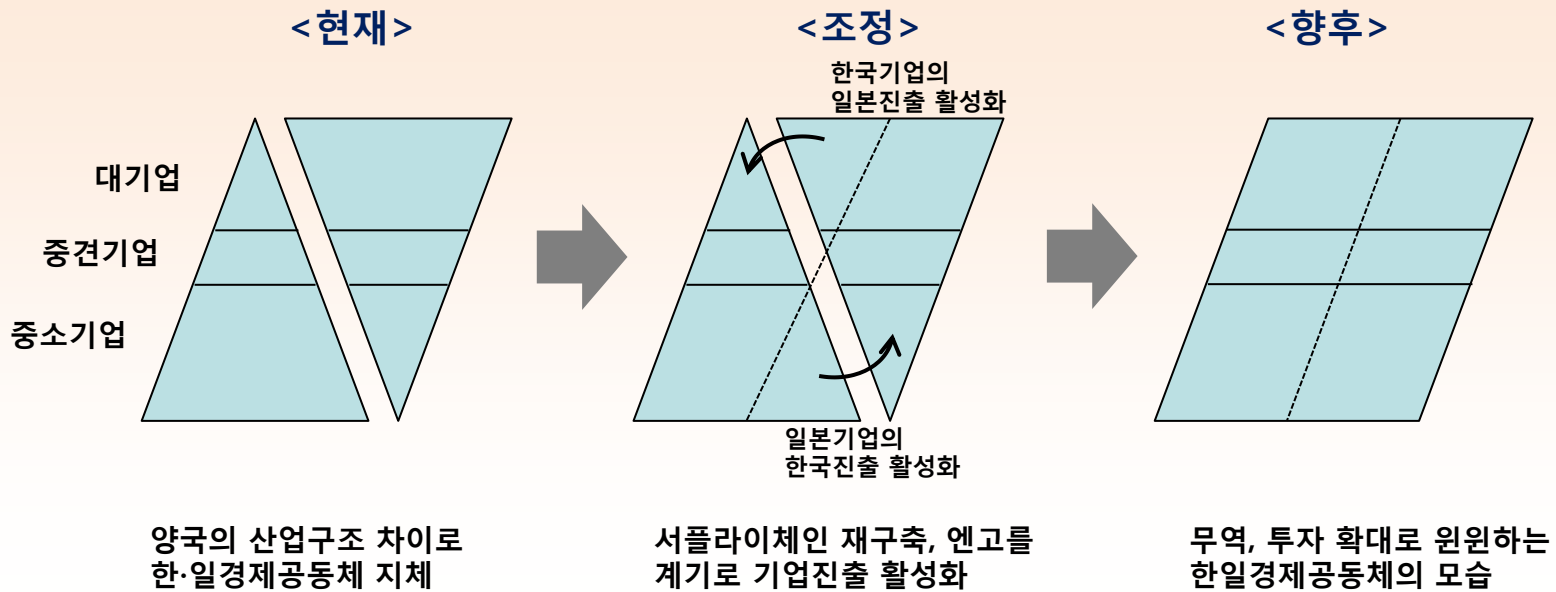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9. 최근 확대균형의 조짐을 『한·일FTA』 호기로 활용

- 한일FTA(한일경제공동체)가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부분이 취약하기 때문
- 또한 한국 대기업의 일본 진출도 여타 지역에 비해 소극적
 - ⇒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을 가속시켜 명실공히 경제협력이 진전되어야 '총론찬성, 각론반대' 의 한일FTA가 진전될 가능성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추진하는 개념도



30. 한·일간 협력방향

▶ 협력 방향 : 최근 일본의 변화를 한일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

- ① 한국은 부품·소재·장치의 대일 의존 해소, 일본시장 진출, 북한 리스크에 대비한 서플라이 체인 구축 기회
- ② 일본은 내수침체 극복, 지진 리스크 대비, 글로벌 생산기지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고, 한일 무역불균형도 해소
⇒ '확대균형'의 한·일 경제관계 ⇒ 한일FTA의 진전

일본 정부

- ① M&A,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한국에도 적극 적용
- ② 지역 중소기업 집단 진출지로 한국을 적극 알선
- ③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 ④ 일본기업 해외진출시의 기술유출에 대한 지도 충실과 기술유출에 대한 과도한 우려 자제

한국 정부

- ① 한국진출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등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 ② 지적소유권 보호, 특히 對중소기업 정책을 강화
- ③ 일본기업 유치전략 재검토 : 인센티브 부여형 ⇒ 사업비전 제시형
- ④ 한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 구축
- ⑤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정보제공을 충실

31. 구체적 협력 과제 : ① 일본 중소기업의 한국진출 지원 강화

일본중소기업 한국진출 애로요인

- 한국 : 자금력, 정보력이 부족한 일본 중소기업 한국진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미정비
- 일본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비해 한국진출에 대한 일본정부, 지자체, 기업의 자금, 정보 제공에 소극적 대처

한국측 과제

- 일본중소기업 한국진출 지원시스템 강화
 - 특별 여신·보증 채널(펀드 등) 마련
 - 정부·금융기관·단체·기업이 연계하여 지원
 -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수도권 지역 전용공단 조성
 - 한국기업과의 협력 정보 제공 강화

일본측 과제

- 한국진출 기업에 대한 일본정부 지원 강화
 - 국제협력은행(JBIC)의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 용자 지원시 한국은 제외
⇒ 한국도 지원대상국에 포함할 필요
 - 지자체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한국진출 지원에 소극적 대처
 - 일본종합상사들도 한국진출 비즈니스에 적극 대처할 필요

32. 구체적 협력 과제 : ②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활성화

한국기업 일본진출이 소극적인 배경

- **현황** : 2011년 일본기업의 한국진출비중은 2.1%이나 한국기업 일본진출은 0.9% 에 불과
- **한국** : 일본시장은 공략하기 어렵고, 코스트가 비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일본** : 대만·중국기업의 일본진출에 비해, 한국기업 일본진출에 과민반응

한국측 과제

- 일본시장 진출, 기술습득의 場으로 활용
 - 일본진출은 소재·부품·장치 기술 습득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 ‘북한 리스크’ 도 인식할 필요
 - 중국기업들처럼 지금이 일본시장진출의 호기라는 인식이 필요
 - 일본기업 M&A 정보 수집 노력

일본측 과제

- 한국기업에 대한 과다한 경계심 해소
 - 한국기업 일본진출이 산업공동화 방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 일본측도 일본진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에 적극 홍보할 필요
 - JETRO 등에서 한국기업 유치활동 전개

33. 구체적 협력 과제 : ③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기술유출우려가 양국간 협력을 저해

- 한국 : 일부 중소기업에는 지적소유권 보호 의식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
- 일본 : 일본기업은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한국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기술유출에 대한 양국간의 잘못된 선입관을 배제하고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

한국측 과제

- 일본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정비·홍보
 - 일본기업은 한국진출 시에 핵심기술 유출을 가장 우려함을 인식할 필요
 - ‘지식재산기본법’에서 보호·집행 기능강화
 - 단속강화, 소송·절차 간소화 등에 노력
 - 일본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일본측 과제

- 기술유출 대비책과 기술이전 채널 마련
 - 일본기업은 경산성이 마련한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참고로 철저한 대비책 마련
 - 중소기업은 일본정부가 지원 강화
 - 한국은 중국 등지보다 지적소유권 보호가 잘 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
 - 불필요 기술은 정당한 기술이전 채널 마련

감사합니다